

##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Social Media

Hyeon Suk Lyu\*\*, Seung Hee Hong\*\*\*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th Floor Sangnok Building, 459 Eonju-ro, Gangnam-gu, Seoul, Korea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if several prominent media theories are appropriate to explain the public's risk perception and risk communication via social media. It is found that the existing theories, notwithstanding their strengths, have failed in one way or the other to provide an integrated framework that is comprehensive in explaining the effect of social media on the public's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In this milieu, the paper aspires to bridge the gap in knowledge based on the third person effect theory, the first person effect theory, and the ipresumed media influence model, with a view to providing more comprehensive scholarly lens for explaining the idiosyncrasies of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via social media.

**Key words:**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social media, media effect theories.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위험인식 및 위험소통과 미디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들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들 미디어 효과 이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제3자 효과 이론, 제1자 효과 이론,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 등에 주목한다. 복핵, 성범죄, 자살, 불산 누출 사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 미디어 효과 이론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미디어 효과 이론들이 소셜미디어 상의 위험인식과

---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2013년 보고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정보 확산과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 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밝힙니다.

\*\* Tel. +82-2-0000. Fax. +82-2-4002-0000. E-mail. 0000@sehan.ac.k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090-0001. E-mail. 0000@de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n. 10, 2015 / Revised: Jul. 28, 2015 / Accepted: Aug. 5, 2015

위험소통을 설명하는 하나의 통합된 분석틀을 제공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미디어 효과 이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 현상을 연결하는 시도로서, 향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소통 전략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위험인식, 위험소통, 소셜미디어, 미디어 효과 이론.

## I.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험소통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고,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분야의 연구 역사가 짧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분야가 워낙 방대해 체계적 연구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위험인식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위험소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미디어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미디어가 재난과 위험 관련 정보의 중요 출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위험소통의 공간 내지 채널로서 위험 인식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Kasperson, et. al., 1989; Anders & Lennart, 2000; Young Wook Kim, 2008; Hae Ryong Song, 2012). 소셜미디어는 2002년 Friendster.com 사이트를 시작으로, Myspace(2003년), Facebook(2004년), Twitter(2006년)를 거쳐 이제는 사회적 관계 및 개인적 친밀감에 기반을 둔 일상적 소통 채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일련의 재난안전 사고에서 목도했듯이 위험소통 수단 및 채널로서의 역할 역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타나는 위험지각과 위험소통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제3자 효과(The third person effect theory) 및 제1자 효과(The first person effect theory),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The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model) 등 기존 미디어 효과 이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 현상에도 적용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차이가 수용자의 위험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위험인식 및 위험소통의 의미

위험(risk)이란 어떠한 결과(재난의 결과로서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Ji-Bum Chung, 2009 등)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0)이다.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 즉 위험지각(risk perception)이란 ‘개인이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

해 가지는 주관적인 판단'(Slovic, 1992)을 뜻한다. 이러한 위험지각을 바라보는 입장은 존재론적 차원(ontological)에서 크게 두 개의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실재론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이 있다(Taylor-Gooby & Zinn, 2006; Ji-Bum Chung·Hyeon-Suk Lyu, 2009 recited). 위험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은 대체로 실재론적 입장을 띤다. 이 관점은 위험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측정과 계산이 가능하고 확률적으로 예측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경제적인 분석이나 확률적인 분석보다는 위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 변수에 의한 위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위험은 객관적으로 측정된 위험 수준과 괴리가 있다(Fischhoff et al., 1978; Slovic, 1987; Young Wook Kim, 2008: 70; Ji-Bum Chung·Hyeon-Suk Lyu, 2009 재인용). 즉, 위험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지각에 의해 재구성된 주관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Slovic 1984; Young Wook Kim, 2008: 69 recited). 이렇듯 실제 위험과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심리측정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과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은 그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심리측정패러다임은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불안을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인지적 특성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슬로빅(Slovic, 1978; 1987; 2001) 이래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심리측정을 통해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연구했고, 이를 위험지각(risk perception)이라 명명했다. 슬로빅(Slovic, 1987)은 위험상태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 '두려움 정도(dread risk)'와 '알려지지 않은 정도(unknown risk)'의 두 차원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이론(cultural theory)은 '위험에 대한 지각은 사람들이 속한 특정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문화이론의 대표적 주창자인 Douglas & Wildavsky(1982)에 따르면 한 개인이 개인주의자(individualists), 평등주의자(egalitarians), 위계주의자(hierarchists), 숙명주의자(fatalists)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위험지각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세계관적 경향을 단순히 이러한 몇 가지 유형에 국한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있다(Geun Lee et al., 2013 recited). 또한 시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문화 유형의 발전적 속성을 도외시하고, 사람들의 문화적 경향 자체를 지나치게 수동적, 고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비판도 있다(Young Wook Kim, 2008).

한편, 위험인식이 기존의 객관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화, 소통, 담론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 확산되면서 위험연구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험연구와 정책의 주된 관심이 위험인식에서 위험소통으로 옮겨지게 된다(Jin Chul Rho, 2009: 9). Young Wook Kim(2008)에 의하면 '위험은 결국 인식의 문제'이며,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인 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를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규정한다. 즉, 위험은 인식에 의해 정의되고, 인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위험소통이란 일차적으로 정부, 전문가, 일반 대중과 집단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위험과 관련된 쌍방향의 정보와 의견의 교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Hae Ryong Song, 2012). 특히 위험소통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할 때, 긴급성과 신뢰성, 그리고 행위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춘

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회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선택적 지각, 예컨대 특정 정보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거나 회피하고 정치적 의도를 이해하여 대답하는 방식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Schaumberger, 2008: 43)

이러한 위험소통에 대한 담론은 자연스레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위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보 취사선택, 위험지각 형성, 소통 내용이 상당부분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의 뉴스보도 등 미디어 노출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Hae Ryong Song, 2012: 35).

## 2. 미디어 효과 이론

미디어가 수용자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효과이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흐름은 배양이론(cultural cultivation theory), 프레임 이론(framing theory), 프레이밍 이론(priming theory) 등, 미디어의 강력한 효과를 뒷받침하는 이론들이다(Mee Sung Kim, 1991). 특히, 1980년 후반부터 위험인식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위험인식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 이론과 모델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이론은 캐스퍼슨 등(Kasperson et al., 1988)의 ‘위험의 사회적 확산 모델(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SARF)’이다. 이러한 강효과이론들의 경우 미디어를 일종의 ‘블랙박스(black box)’로 간주하고, 개인은 미디어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며, 이렇게 받아들인 미디어 정보에 의해 일반대중의 위험인식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Ji-Bum Chung Hyeon-Suk Lyu, 2009).

두 번째 흐름은 미디어의 강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행위자들의 적극적 역할에도 주안점을 두는, 소위 ‘미디어 정보 수용자의 확인 편향성’에 집중하는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는 ‘유일한 블랙박스’가 아니며, 따라서 사람들은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들에 대해 알고 싶거나 사실에 대해 확인을 원할 때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정 미디어를 선별해 선택한다고 주장한다(Ji-Bum Chung Hyeon-Suk Lyu, 2009: 36). 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 믿는 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 범주화, 판단, 결정, 선택하는 위험 정보 확인편향성(confirmation bias)을 가짐에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중적 사회분위기를 포착하거나 반영했을 때 위험을 확산 내지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Ji-Bum Chung·Hyeon-Suk Lyu, 2009: 37). 대표적 이론으로는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 제3자 효과(the third person effect)<sup>1)</sup>가 있다. 그리고 직접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Gunther & Storey(2003)의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the influence of presumed media influence model)이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앞서 언급한 기존 미디어 효과이론을 재편하고 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

1) 단, 문화계국주의에서는 제3자 효과는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본다(Eun-Kyoung, 2014).

라디오, 신문 등 기존 매스 미디어가 의제설정의 주체였으나 현재는 기술 발달로 개인이 의제를 만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역의제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개인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뉴미디어의 보급은 의제설정 방법과 경로를 다변화하였고, 과거와 같은 일방적 의제 전달을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1년 강남 지역 수해상황이 트위터(twitter)를 통해 가장 빨리 전달되었으며,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방송사가 인용하는 경우도 많았다<sup>2)</sup>.

본 연구는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위험인식 및 위험소통을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통 미디어 이론 중 주변인들이 개인의 의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에 주목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프라인 지인뿐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와의 직접적 접촉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상의 위험인식과 위험소통을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단, 미디어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미디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수동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미디어 강효과이론은 본 연구와 거리가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능동적으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 사회화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미디어 환경은 동시다발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보도하는 시스템으로,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의제 차이가 드물며, 미디어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특정 미디어에서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확인 편향성'과 미디어 수용자의 능동성에 주목하는 '제3자 효과 및 제1자 효과',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상의 위험인식과 소통을 탐구하고자 한다.

### 1) 제3자 효과와 제1자 효과

제3자 효과(The third person effect)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들이 매스 미디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Davison, 1983; Park, 2005)'을 말한다. 제3자 효과의 원인이나 인식적 기저에는 자신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구성하려는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 또는 biased optimism)',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편향', '개인의 자긍심'이 깔려있다(Gunther & Mundy, 1993; Perloff, 1989; Jaemin Jung, 2007 등).

제3자 효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된다(Jong-Min Park·Myung-Hee Shin, 2004). 첫째는 제3자 효과 가설의 지각적인 요소로, 미디어 메시지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제3자 지각(third-person perceptions)'이다. 둘째는 '제3자 행동(third-person behavior)'으로, 제3자 지각으로 인해 차후에 발생할 수용자 자신의 태도 또는 행동 변화를 다룬다. 그런데 제3자 지각과 제3자 행동 간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그 결과에 대해 일관된 답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Seungchan Yang(1999)에 따르면 수용자의 태도·행동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지각적 편향이 아니라 타인이 받을 미디어 효과에 관한 관심이다(Irkwon Jong·Youngseok Kim, 2006)

2) 한겨레, “‘물난리 현장중계’ 트위터가 빛났다(2011.07.03.)”.

즉, 타인에 대한 미디어 효과의 직접적인 증거나 자신에 대한 미디어 효과의 간접적인 증거 없이도 타인에 대한 미디어 효과를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3자 지각’이란 나에 대한 미디어 효과와는 관계없이 남에 대한 미디어 효과를 지각할 수 있음을 지적인 개념이지 제3자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Irkwon Jong·Youngseok Kim, 2006). 반면, Tewksbury et al.(2004)은 Y2K에 관한 위험연구를 통해 행동적 요소가 제3자 효과 가설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제3자 지각’이 높을수록 ‘자신이 Y2K에 대비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효과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예: 흡연과 음주) 연관될 때 그 효과가 커지고,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될 때(예: 건전한 성생활)는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Irkwon Jong·Youngseok Kim, 2006; Jae-Yung Park & Sae-Eun Kim, 2004; Kyoung Hee Song, Soo-Young Lee, 1998; Perloff, 2002; Banning, 2001, Dong-Pil Cha·Kyun-Tae Han, 2003; Rojas et al., 1996; Chapin, 2000 등).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각적 편향인 ‘역 제3자 효과(the reversed third-person effect)’, 즉 ‘제1자 효과’도 함께 연구되었다(Duck et al., 1995; Hoorens & Ruiter, 1996 등). 이들의 연구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할 경우에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나지만,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1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공익광고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는 제1자 효과가 나타나지만 포르노그래피, 대부업 광고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나는 실증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Chung-Min Joo, 2005; Jaemin Jung, 2007; Dong-Pil Cha·Kyun-Tae Han, 2003; Mie-Jeong Han, Jong-Eun Kim, 2004; In-Sook Kim, 2011 recited).

## 2)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

제3자 효과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제3자 효과 지각과 행동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나면서 제3자 효과의 원인을 지각적 편향이 아닌 타인에 대한 미디어 효과의 우려에서 찾는 새로운 연구가 등장했다. 지각적 편향 또는 수용자 자신에 대한 지각보다 타인에 대한 미디어 효과 지각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수용자의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Irkwon Jong·Youngseok Kim, 2006).

Gunther & Storey(2003)는 미디어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태도 혹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Influence of Presumed Media Influence Model)’을 제안했다(Ji Eun Han·Se Hoon Jeong, 2012). 즉, 자신이 특정 메시지에 자주 노출될수록 제3자의 미디어 메시지 노출 정도와 제3자 미디어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인식이

제3자 행동에 대한 추정을 일으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Gunter et al., 2006; Paek & Gunther 2007; Sungeun Chung et al., 2014 recited). 견서와 스토레이는 금연 캠페인을 접한 청소년이 자신보다 캠페인에 노출된 다른 친구들이 더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 믿고 자신도 흡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라디오 캠페인을 듣게 된 일반인들이 캠페인의 주요 대상인 의료종사자들의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 믿고, 실제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이 추정된 미디어 영향력(presumed media influence)으로 인해 담당 의사의 진료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Gunther & Storey, 2003; Eun-Ju Lee·Yoon Jae Jang, 2009 recited). 이 모델은 원래 대상(target) 수용자가 아닌 다른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도출되지만, 그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Hye-Jin Paek·Hey Gyu Lee, 2013).

이 모델의 이론적 단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①매스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주의(attention)와 그 내용에 대한 인상(이미지) 형성, ②특정 내용에 관한 대표적 특성을 추정, ③그런 내용이 넓게 퍼지리라는 추정, ④그 내용이 여론과 다른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정, ⑤아울러,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정, ⑥결과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위험메시지와 정보는 수용자의 위험인식과 행태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다(Park, 2005). 즉 미디어 보도가 타인의 행동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상된 지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은 다른 사람의 태도 또는 행동 지각에 따라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모델은 제3자 효과와는 달리 누가 미디어 영향을 더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대신 개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Hye-Jin Paek·Hey Gyu Lee, 2013).

### III. 분석틀

본 연구는 미디어와 위험지각 및 위험소통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인 제3자 효과 및 제1자 효과 이론(The third person effect theory & The first person effect),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Influence of Presumed Media Influence Model)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내위험소통 사례에서도 적용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시작한 당시인 2013년 가장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켰던 현안인 ‘4대 사회악’ 중 ‘성범죄사건’, 산업·기술재난 중 ‘불산 누출 사건(이하 ‘불산)’, 안보위험 중 ‘북핵’, 사회경제적 위험 중 ‘자살’을 사례로 선정하고, 재난 및 주요상황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론들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기존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기반 소통 방식의 차이가 수용

자의 위협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설의 설정

### 1) 제3자 효과 및 제1자 효과 이론

[가설 1] 각 위험요인(북핵, 불산, 성폭행, 자살)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가설 2] 각 위험요인(북핵, 불산, 성폭행, 자살)에 대한 미디어의 종류(기존 미디어, 온라인사이트, 소셜미디어)는 자신과 타인의 지각편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각 위험요인(북핵, 불산, 성폭행, 자살)에 대한 지각적 편향이 자신의 행동적 요소(사재기, 누출지역 기피 또는 대피추구, 여아행동 제한, 자살보도 제한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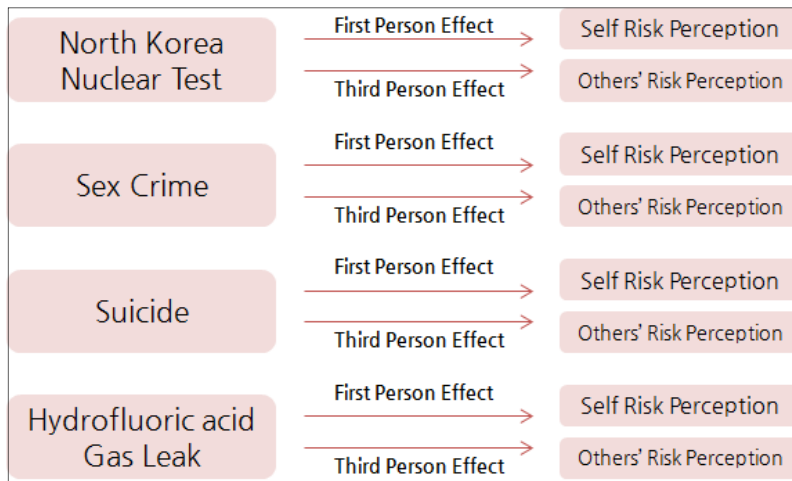
### 2)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

[가설 4] 각 위험요인(북핵, 불산, 성폭행, 자살)별 미디어 보도로 인한 타인의 행동변화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행동변화(사재기, 누출지역 기피 또는 대피추구, 여아행동 제한, 자살보도 제한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주요 변수의 측정

### 1) 자신의 위협지각과 타인의 위협지각

본 연구에서 제3자와 제1자 효과와 관련한 설문문항은 Dong-Pil Cha-Kyun-Tae Han(2003:43)의 연구가설 1, Hong-Sik. Yu(2010: 1247-248)의 연구가설 1-1, 1-2, 1-3, Dae-Kyung Kim(2013: 7)의 연구가설 1 등을 참고했고, 제3자 효과의 구성요소 중 ‘제3자 지각’ 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위험요인(북핵, 불산, 성폭행, 자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위협지각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신의 위협지각’은 ‘미디어에서 북한의 핵도발(불산, 성폭행, 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위협을 느꼈다’는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타인의 위협지각’은 ‘미디어에서 북한의 핵도발(불산, 성폭행, 자살)과 관련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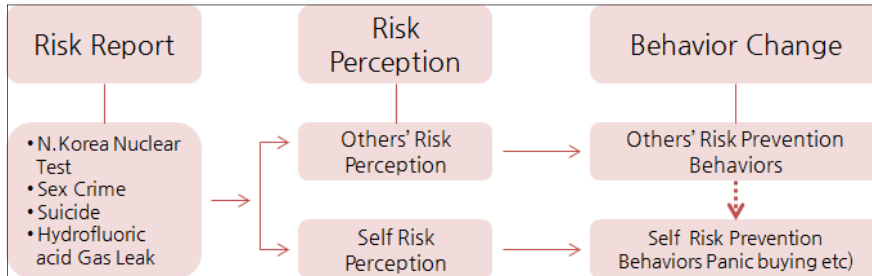
<Figure 1> The Third-Person Effect & The First-Person Effect Models

## 2) 자신의 위험대비 행동과 타인의 위험대비 행동

제3자 효과의 구성요소 중 제3자 지각으로 인해 차후에 발생할 수용자 자신의 태도 또는 행동 변화, 즉 ‘제3자 행동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대비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구성하였다 (Hong-Sik. Yu, 2010: 253)의 연구가설 2-1, 2-2 등 참조). 북핵 사례의 경우, ‘미디어에서 북한의 핵도발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전쟁에 대비(생필품 구입, 대피처 확인 등)하였다’는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성범죄사례의 경우 ‘미디어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나 또는 내가 아는 가까운 여성들을 위한 행동(문단속 철저, 빠른 귀가, 보호 장비 구입) 변화를 촉구했다’를, 자살 사례의 경우 ‘미디어에서 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자살 과잉보도 자제를 위한 캠페인 등에 동참하거나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를, 불산 사례의 경우 ‘미디어에서 불산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불매운동, 불산 누출 지역 대피, 대피촉구 등)’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의 적용여부를 알기 위해서, Ji Eun Han·Se Hoon Jeong(2012: 66)의 연구와 Park(2005: 603)의 설문문항을 참고했다. 특히, Park(2005)의 연구인, 매스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매우 마른 모델이나 여배우의 이미지가 다른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 신체(the female body ideal)’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살을 빼려는 욕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을 참고해 추정된 미디어의 영향이 초래하는 타인의 행동변화 및 나의 행동변화를 묻는 설문문항을 설계했다. 우선 미디어 보도가 ‘타인의 위험대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북핵 사례의 경우, ‘미디어에서 북한의 핵도발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생필품 구입, 대피처 확인 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를, 성범죄 사례의 경우 ‘미디어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문단속 철저, 빠

른 귀가, 보호 장비 구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살의 경우 ‘미디어에서 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살 과잉보도 자제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라 생각 했다’를, 불산 사례의 경우 ‘미디어에서 불산과 관련한 보도를 접한 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불매운동, 불산 누출 지역 대피, 대피축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를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Figure 2> Influence of Presumed Media Influence Model

### 3) 미디어의 종류

각 위험요인(북핵, 불산, 성폭행, 자살)에 대한 보도를 접하는 매체로는 기존의 매스미디어, 온라인사이트, 소셜미디어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매스미디어로는 신문기사, TV뉴스, 라디오 뉴스를, 온라인 사이트로는 뉴스 포털사이트와 재난안전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소셜미디어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구분한 이유는 온라인 사이트를 주축으로 하는 웹 1.0에서 소셜미디어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웹 2.0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웹 2.0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는 사용자 간 소통기능이 향상되고 강력한 온라인 이해집단을 구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보다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면서 인터넷 등 일반적인 정보통신기술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0).

###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의 유무와 같은 기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인 더미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대학교, 대학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녀의 유무는 ‘자녀가 있는 경우=1’, ‘자녀가 없는 경우=0’인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만 19세 이상 전국 모집단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1차 지역별 층화추출, 2차 성별 층화추출, 3차 연령층화추출<sup>3)</sup>(20대, 30대, 40대, 50대)을 실시하여, 총 1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0일 간 실시되었다. 총 1300명 가운데 재난 및 긴급 상황 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25.8%인 335명이었고, 이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test와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제3자 지각 편향

위험요인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지각’ 변수와 ‘타인의 위험지각’ 변수 간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1>). 성범죄( $t=-6.818, p<.001$ ), 자살( $t=-9.549, p<.001$ ), 불산( $t=-11.116, p<.001$ ) 사례의 경우 응답자들은 자신보다 타인이 관련 미디어 보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북핵의 경우, 자신이 타인보다 북핵 미디어 보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6.882, p<.001$ ). 즉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각적 편향인 ‘역 제3자 효과(the reversed third-person effect)’, 즉 ‘제1자 효과’가 북핵 미디어 보도의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 Media Coverage of Risks and Perceptions of Bias

Risk	Subject	Mean	Standard Deviation	t	p	Perceived Bias Score(Average)
North Korea Nuclear Test	Self	2.81	.745	6.882	.000	-.1592
	Others	2.65	.762			
Sex Crime	Self	2.57	1.083	-6.818	.000	.3419
	Others	3.11	1.056			
Suicide	Self	2.33	.822	-9.549	.000	.2477
	Others	2.58	.792			
hydrofluoric acid	Self	2.31	.830	-11.116	.000	.2400
	Others	2.55	.844			

※ Perceived Bias Score(Average)=Others' Risk Perception-Self Risk Perception

##### 2. 미디어의 종류와 제3자 지각

3) 5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평균 60.1%(2013년 기준)로 주민등록인구 비율보다 낮게 조정.

미디어의 종류(TV, 신문, 라디오 등과 같은 기존 매스미디어, 온라인 사이트,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위험지각’과 ‘타인의 위험지각’, 그리고 ‘지각적 편향(제3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북핵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Table 2>), 미디어 종류에 상관없이 미디어 보도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위험지각과 타인의 위험지각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 매스미디어나 온라인 사이트 이용정도와 달리,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제3자 지각편향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124, p<.001$ ).

<Table 2> Media Type, Media Coverage and Risk Perception Bias: North Korea Nuclear Test

Variable		Self Risk Perception	Others' Risk Perception	Third Person Effect
Media Type	Conventional Media Use	.074*	.090**	.016
	Online Site Use	.243***	.176***	-.056
	Social Media Use	.074*	.208***	.124***
Control Variable	Sex(male=1)	.029	-.098***	-.115***
	Age	.015	-.037	-.048
	Education Level	-.028	-.024	.003
	No. of Child	.031	-.016	-.042
*p<.05, **p<.01, ***p<.001 Each column i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 <sup>2</sup> =.110 modified R <sup>2</sup> =.105	R <sup>2</sup> =.150, modified R <sup>2</sup> =.145	R <sup>2</sup> =.032, modified R <sup>2</sup> =.026

성범죄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Table 3>), 미디어의 이용정도와 제3자 지각적 편향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자신의 위험지각( $\beta=-.344, p<.001$ )과 타인의 위험지각( $\beta=-.216, p<.001$ )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일수록 제3자 지각편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154, p<.01$ ).

<Table 3> Media Type, Media Coverage and Risk Perception Bias: Sex Crime

Variable		Self Risk Perception	Others' Risk Perception	Third Person Effect
Media Type	Conventional Media Use	.074*	.090**	.016
	Online Site Use	.243***	.176***	-.056
	Social Media Use	.074*	.208***	.124***
Control Variable	Sex(male=1)	.029	-.098***	-.115***
	Age	.015	-.037	-.048
	Education Level	-.028	-.024	.003
	No. of Child	.031	-.016	-.042
*p<.05, **p<.01, ***p<.001 Each column i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 <sup>2</sup> =.110 modified R <sup>2</sup> =.105	R <sup>2</sup> =.150, modified R <sup>2</sup> =.145	R <sup>2</sup> =.032, modified R <sup>2</sup> =.026

자살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Table 4>)에서도, 미디어 종류와 무관하게 미디어 보도에 빈번하게 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위험지각과 타인의 위험지각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 종류와 제3자 지각적 편향과의 유의미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제3자 지각적 편향이 높았으며( $\beta=-.118, p<.001$ ), 연령이 높을수록 제3자 지각적 편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107, p<.001$ ).

<Table 4> Media Type, Media Coverage and Risk Perception Bias: Suicide

Variable		Self Risk Perception	Others' Risk Perception	Third Person Effect
Media Type	Conventional Media Use	.220***	.154***	-.063
	Online Site Use	.175***	.221***	.033
	Social Media Use	.081**	.094**	.008
Sex(male=1)		.009	-.118***	-.107***
Control Variable	Age	.000	.099***	.084**
	Education Level	-.022	.015	.032
	No. of Child	.022	-.015	-.032
*p<.05, **p<.01, ***p<.001 Each column i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 <sup>2</sup> =.152, modified R <sup>2</sup> =.147	R <sup>2</sup> =.173, modified R <sup>2</sup> =.169	R <sup>2</sup> =.020, modified R <sup>2</sup> =.015

불산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Table 5>)에서도 역시, 미디어 종류와 무관하게 미디어 보도 노출 빈도가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위험지각과 타인의 위험지각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핵 사례와는 반대로, 기존 매스미디어 이용정도가 낮을수록 제3자 지각 편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beta=-.157, p<.001$ ), 온라인 사이트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제3자 지각 편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6, p<.001$ ).

<Table 5> Media Type, Media Coverage and Risk Perception Bias: Hydrofluoric Acid Gas Leak Accident

Variable		Self Risk Perception	Others' Risk Perception	Third Person Effect
Media Type	Conventional Media Use	.331***	.181***	-.157***
	Online Site Use	.097**	.249***	.166***
	Social Media Use	.175***	.128***	-.047
Sex(male=1)		-.025	-.116***	-.100***
Control Variable	Age	.086***	.053*	-.034
	Education Level	-.002	.041	.047
	No. of Child	.008	-.009	-.019
*p<.05, **p<.01, ***p<.001 Each column i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 <sup>2</sup> =.295, modified R <sup>2</sup> =.291	R <sup>2</sup> =.245, modified R <sup>2</sup> =.240	R <sup>2</sup> =.032, modified R <sup>2</sup> =.027

### 3. 제3자 지각과 제3자 행동 간의 관계,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 적용여부

각 위험요인(북핵, 불산, 성폭행, 자살)에 대한 제3자 미디어 지각편향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행동적 요소(사재기, 누출지역 기피 또는 대피촉구, 여아행동 제한, 자살보도 제한요구) 또는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가설 3])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대비 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제3자 지각’이 ‘제3자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모형 1은 설명변수로서 ‘자신의 위험지각’, ‘타인의 위험지각’을 설정하였으며, 모형 2는 ‘제3자 지각편향’만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타인의 위험 대비행동’과 ‘자신의 위험 대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가설 4),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북핵 보도에 대한 분석결과(<표 6>), 제3자 미디어 지각 편향과 생필품 구입, 대피처 확인 등 자신의 위험 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 즉, 북핵 보도 관련 제3자 지각이 제3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의 위험대비 행동이 많을 것으로 인식할수록 자신의 위험대비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beta=.474, p<.001$ ; 모형 2:  $\beta=.632, p<.001$ ). 즉, 북핵 보도와 관련하여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 Regression Analysis of Risk Prevention Behaviors Responding to North Korea Nuclear Test

	model 1	model 2
Self Risk Perception	.149***	
Others' Risk Perception	.164***	
The Third Person Risk Perception Bias		-.027
Others Person's Risk Prevention Behavior	.474***	.632***
Sex(male=1)	-.010	-.013
Age	.099***	.098***
Education Level	.042*	.043*
No. of Child	.034	.040
* $p<.05$ , ** $p<.01$ , *** $p<.001$		
Each column i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2=.454$ , modified $R^2=.451$	$R^2=.409$ , modified $R^2=.406$

성범죄 보도에 대한 분석결과(<Table 7>)에서도, 제3자 미디어 지각 편향과 자신의 위험 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 성범죄 보도 관련 제3자 지각이 제3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의 위험대비 행동이 많을 것으로 인식할수록 자신의 위험대비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beta=.367, p<.001$ ; 모형 2:  $\beta=.881, p<.001$ ). 즉, 성범죄 보도와 관련해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자신의 위험 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앞서 <Table 3>

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위험지각과 타인의 위험지각이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것과 대비해 볼 수 있다. 즉, 위험지각이 실질적인 위험 대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Risk Prevention Behaviors Responding to Sex Crime

	model 1	model 2
Self Risk Perception	.175***	
Others' Risk Perception	.426***	
The Third Person Risk		-.042
Perception Bias		
Others Person's Risk Prevention	.367***	.881***
Behavior		
Sex(male=1)	.005	-.024
Age	.006	.008
Education Level	-.017	-.026
No. of Child	-.034	-.049
*p<.05, **p<.01, ***p<.001		
Each column i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 <sup>2</sup> =.831, modified R <sup>2</sup> =.825	R <sup>2</sup> =.785, modified R <sup>2</sup> =.780

자살 보도에 대한 분석결과(<Table 8>), 제3자 미디어 지각 편향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위험 대비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beta=.044$ ,  $p<.05$ ).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Risk Prevention Behaviors Responding to Suicide

	model 1	model 2
Self Risk Perception	.103***	
Others' Risk Perception	.233***	
The Third Person Risk		.044*
Perception Bias		
Others Person's Risk Prevention	.483***	.638***
Behavior		
Sex(male=1)	.020	-.002
Age	-.004	.009
Education Level	.032	.027
No. of Child	.021	.021
*p<.05, **p<.01, ***p<.001		
Each column i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 <sup>2</sup> =.473, modified R <sup>2</sup> =.470	R <sup>2</sup> =.421, modified R <sup>2</sup> =.418

즉, 자살 보도 관련 제3자 지각이 제3자 행동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살보도 자체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타인이 적극적으로 위험 대비행동을 할 것이라 인식할수록, 자신의 위

험대비 행동 역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beta=.483, p<.001$ ; 모형 2:  $\beta=.638, p<.001$ ). 즉,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도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살 관련 자신의 위험 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는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불산 보도에 대한 분석결과(<Table 9>), 제3자 미디어 지각 편향 정도가 낮을수록 자신의 위험 대비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beta=-.122, p<.001$ ). 이는 Tewksbury, et. al.(2004)의 연구와 같이 불산 보도 관련 제3자 지각편향이 제3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한 것이나, 그 방향이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또한 타인이 적극적으로 위험 대비행동을 할 것이라 인식할수록, 자신의 위험대비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beta=.315, p<.001$ , 모형 2:  $\beta=.684, p<.001$ ). 즉, 불산 보도와 관련해서도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사례에서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불산 보도 관련 자신의 위험 대비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beta=.057, p<.01$ ).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Risk Prevention Behaviors Responding to Hydrofluoric Acid Media News

	model 1	model 2
Self Risk Perception	.346***	
Other Person's Risk Perception	.211***	
The Third Person Risk Perception Bias		-.122***
Others Person's Risk Prevention Behavior	.315***	.684***
Sex	.002	-.007
Age	.030	.057**
Education Level	.014	.025
No. of Child	.003	.004
*p<.05, **p<.01, ***p<.001		
Each item indicates	R <sup>2</sup> =.577,	R <sup>2</sup> =.469,
Standardized Coefficients	modified R <sup>2</sup> =.575	modified R <sup>2</sup> =.467

## V. 논의

설문조사 결과 첫째, 불산, 성폭행, 자살사례에서 관련 미디어 보도를 접한 개인은 미디어 보도가 자신보다 타인의 위험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 즉, 자신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두드러진 것이다. 반면, 북핵은 네 가지 키워드 중 가장 특이한 결과를 보였다. 북핵 사례는 제3자 효과보다 제1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우에는 제1자 효과가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핵 사례는 나머지 세 개 키

위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징으로, ‘안보’ 같은 거시적인 분야는 성범죄나 자살처럼 개인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아니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무경험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제1자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즉, 네 가지 키워드 중 북핵은 제1자 효과와 제3자 효과를 동시에 야기하는 위험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하나만 보고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좀 더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로써 ‘각 위험요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각할 것’이란 [가설 1]은 북핵을 제외하고 성립되었다.

둘째, 미디어 종류에 관계없이 미디어 보도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위험지각과 타인의 위험지각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각 위험요인에 대한 미디어 종류는 타인의 지각편향에 영향을 줄 것’이란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다만,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역시 자신의 위험지각과 타인의 위험지각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제3자 지각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직 북핵 사례뿐이었다. 즉, 북핵 관련 위험을 소셜미디어에서 빈번하게 접촉한 사람일수록 제3자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제3자의 미디어 지각편향이 자신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결과, 북핵과 성범죄 사례에서는 제3자 지각편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살사례에서는 제3자 지각편향이 높을수록, 불산 사례에서는 제3자 지각편향이 낮을수록 자신의 위험대비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각 위험요인에 대한 지각적 편향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설 3]은 기각됐다.

넷째, 제3자 지각과 제3자 행동 간 관계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례 모두에서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타인의 위험 대비행동과 자신의 위험대비 행동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추정된 미디어 영향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4]는 성립되었다.

한편, 슬로빅의 심리측정페러다임 이론에 나타나는 개인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으로 북핵 사례는 제3자 효과가 아닌 제1자 효과를 보였는데, 위험노출 빈도 및 예측불가능성, 두려움, 친숙하지 않음 등과 같은 요소가 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태도의 낙관적 편향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제1자 효과에서 간과한 점으로, 단순히 메시지 내용이 긍정적일 때 뿐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거나 직접적인 영향 정도가 높을 때도 제1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확률, 위험 경험 유무, 결과 예측 확률, 직접적 영향력 등 다각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차원의 위험요인인지 또는 개인적 위험요인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위험요인에서 제1자 효과가 나타났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는 제1자 효과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위험 요인을 좀 더 세분화 또는 재분류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조사 결과, 사례에 따라 위험지각과 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성범죄 사례의 경우, 여성은 남

정보보다 자신의 위험지각이나 타인의 위험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례 특성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Table 3>). 하지만 이러한 위험지각이 실질적인 위험 대비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Table 7>). 심리측정패러다임에 따라 이유를 분석하자면, 성범죄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미디어를 통해 거의 매일 성범죄 사건이나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familiar)하고 널리 알려진 위험(old risk)으로 인식되어 실질적인 위험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범죄를 흔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사례에서, 위험인식 및 위험소통과 관련하여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재난 및 위험 상황에서 점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미디어의 종류보다는 미디어 노출 빈도에 따라 위험지각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신속성이 매우 높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나 강남 수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올렸던 것처럼 소셜미디어는 정보 확산의 실시간성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보자가 되어 새로운 이슈 전파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매스미디어는 신뢰성이 높다. 이미 검증된 뉴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취재도 체계적이며, 전문가가 참여한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셜미디어는 놀라운 파급력을 지니고 있지만, 재난 상황이 오래 이어질수록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런 면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은 위험인식과 위험소통에 관한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미디어 노출 횟수에 대한 지나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미디어 노출빈도는 사안의 심각성이나 정치 쟁점 등 영향을 받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2014년 2월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뉴스 검색 결과 약 1만 건이었지만(검색어 ‘마우나리조트’),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약 60만 건의 뉴스가 검색되었다(검색어 ‘세월호’).<sup>4)</sup> 실제 피해 심각성, 미래세대 영향 유무, 위험의 통제가능성, 위험의 자발성 여부와 같은 위험자체의 특성이 미디어의 노출 빈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디어 노출만 위험인식이나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체의 특성 역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디어는 이러한 위험의 특성을 자주 보도함으로써 특정 위험에 대한 인식이 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는 효과(ripple effect)를 초래하기도 한다.

## VI. 결론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일상적 소통 수단이나 채널이 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위

4) 2015년 4월 검색 기준.

험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 현상을 이해하고자 기존 미디어 효과 이론 중 강효과이론에 주목했다. 특히, 강효과이론 중 미디어 수용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및 위험정보 확인 편향성에 주목하는 이론인 제3자 효과와 제1자 효과,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에 초점을 두었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벌어지는 위험인식과 위험소통을 이해하는 모델로서도 적용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북핵, 성범죄, 자살, 불산 사례에서 기존 미디어 효과 이론인 '제3자 효과'(북핵사례 제외), '추정된 미디어 영향의 영향 모델'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스미디어 노출 정도가 위험인식과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었다. 한편, 북핵과 같은 안보문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제1자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하여 슬로빅의 심리측정패러다임 이론의 영향요인이 유효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즉, 기존 미디어 효과 이론에서 간과했던 위험노출 빈도 및 예측불가능성, 두려움, 친숙하지 않은 정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현실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소통이 활발한 반면, 국내 위험소통 연구가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학제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되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위험인식과 위험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본 연구가 향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소통 전략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직접적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 연구모형을 설계했으나, 지나치게 단순화한 면이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등을 검증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보다 복잡한 논의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후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한 연구를 기대한다.

둘째, 설문응답자 1300명 중 재난 및 긴급 상황 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335명으로, 더 많은 응답자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 이용 빈도에 따라 중이용자와 경이용자를 구분하여 이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브너(Gerbner, 1998)의 배양이론에 따르면 특정 미디어 노출 시 이용 빈도에 따라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이용 빈도 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한 연구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Anders, A. and Lennart, S. 2000. Risk perception and the media. *Journal of Risk Research*. 3: 31-50.
- Banning, S. A. 2001. Do you see what I see? Third-person effects on public communication through self-esteem, social stigma, and product use.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4:

127-147.

- Chapin, J. R. 2000. Third-Person Perception and Optimistic Bias Among Urban Minority At-Risk Youth. *Communication Research* February. 27: 51-81.
- Chung-Min Joo. 2005. The Use of the Internet Pornography and Perception Bia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9: 565-603.
- Dae-kyung Kim. 2013. Examining Third-Person Effects of Polling News in the 2012 South Korean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Social Science Studies*. 24(2).
- Dong-Pil Cha·Kyun-Tae Han. 2003. Public Perceived Impact of Knowledge about Others' Reaction to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Self Persuasion and Third-Person Effec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 38-59.
- Douglas, M. and Wildavsky, A. 1983.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uck, J. M. and Mullin, B. A. 1995. The perceived impact of the mass media: Reconsidering the third 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77-93.
- Eun-Ju Lee·Yoon Jae Jang. 2009. Effects of Others' Comments on Internet News Sites on Perceptions of Reality: Perceived Public Opinion, Presumed Media Influence and Self Opin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 53: 50-71.
- Eun-Kyoung Choi. 2014. *Global Media and Cultural Border*. Seoul: CommunicationBooks.
-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and Combs,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 8: 127-152.
- Geun, Lee·Ju-Ae Kim·Hyeon-Suk Lyu. 2013. A Study on Public Perception of Safety and Policy Sugges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pring Conference.
- Gerbner, G. 1998. Cultivation Analysis: An Overview.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 3-4, 175-194.
- Gunther, A.C. & Munday, P. 1993. Biased optimism and the third-person effect. *Journalism Quarterly*. 70: 58-67
- Gunther, A.C. and Storey, J. 2003. The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53: 199 - 1215.
- Hae Ryong Song. 2012. *Risk Communication & Media*.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 Hong-Sik Yu. 2010. Third-Person Effect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Internet Repli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5): 238-278.
- Hoorens, V. and Ruiters, S. 1996. The optimal impact phenomenon: beyond the third person effect.

-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4): 599-610.
- Hye-Jin Paek·Hey Gyu Lee. 2013. Health Communication: Message, Receiver, Media Strategy. Seoul: CommunicationBooks
- In-Sook Kim. 2011. The Impact of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perception of knowledge, the use of communication channels, the third-person effect about nuclear accident on optimistic bias- Fukushima nuclear accident.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 79-106.
- Irkwon Jong·Youngseok Kim. 2006. Effects of online media replies on public opinion: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third effec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0(4): 302-327.
- Jaemin Jung. 2007. Third-Person Effect on the Private Loan TV Commercia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 111-134.
- Jae-Yung Park & Sae-Eun Kim. 2004. The Influence of Media Critique on Credibility Perception as Third-Person Effects. Korea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8. No.5.
- Ji-Bum Chung. 2009.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Seoul: Bupmunsa.
- Ji-Bum Chung·Hyeon-Suk Lyu. 2009. The Korean Public's Risk Percep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
- Ji Eun Han·Se Hoon Jeong. 2012. Effects of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Intentions for Purchasing Men's Cosmetics. Speech and Communication. 18: 55-77.
- Jin Chul Rho. Paradigm Shift: from the Beck's Risk-Society to the Luhmann's Sociology of Risk.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Jong-Min Park·Myung-Hee Shin. 2004. A comparative study on concepts of pluralistic ignorance, spiral of silence, their-person effect, and model of co-orientatio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Press and Society' September Seminar.
- Kasperson, R. E., Renn, O., Slovic, P., Brown, H. S., Emel, J., Goble, R., and Ratick, S. 1988.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 conceptual framework. Risk analysis. 8(2): 177-187.
- Kasperson, R. E. and Palmulund, I. 1989. Evaluating risk communica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Plenum Press.
- Kyoung Hee Song, Soo-Young Lee. 1998. TV violence and third person effect: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the TV producers and parent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29-256.
- Mee Sung Kim. 1991. Social Learning Theory and Agenda-Setting Functions. Newspaper &

Broadcasting. 1991. August. 88-99.

Mie-Jeong Han·Jong-Eun Kim. 2004. The Perceived Media Effects and the Attitudes toward censorship of undesirable media messages and support of socially desirable messag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58: 301-328.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White Paper. 2010. Seoul: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0. A Successful Social Media Adoption & Usage Strategy in Public Sector. CIO Report. 24.

Perloff, R. 1993. Third-person effect research 1983 - R1992: A review and syn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5(2).

Rojas, H., Shah, D. and Faber, R. 1996. For the good of others: Censorship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63-186.

Schaumberger, G. 2008. The News to be Used - The Theory and Practice of Disaster Risk Communication. With Case Studies of the Earthquake in South Asia in 2005. Berlin: Schaltungsdienst Lange O.H.G.

Seungchan, Yang. 1999. The Critical Review of the Third-Person Effect Studie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36: 159-184.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0: 280-285.

Slovic, P. 1992. Perception of risk: Reflections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Westport: Praeger.

Sungeun Chung·Hee Yoon Nho, Sang-ho Byeon. 2014.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Effect of Presumed Influence of Media Coverage on Behavioral Intention: A Critical Approach to the Third-Person Effect: Hypothesis and the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Hypothesi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8(4): 198-239.

Sung-Yeon Park, 2005. The Influence of Presumed Media Influence on Women' Desire to Be Thin. Communication Research. 32(5): 594-614.

Taylor-Gooby, P. and Zinn, J.O. 2006. Current Directions in Risk Research: New Developments in Psychology and Sociology. 26(2): 397-411

Tewksbury, D. and Weis, D. 2004. Preparations for Y2K: Revisiting the Behavioral Component of the Third-Person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54(1): 138-155.

Young Wook Kim. 2008. Risk, Crisis & Communication- An Interpretation and Response to Modern Society Risk, Crisis, and Conflict.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Report "A Flood Disaster broadcasting from the site, Twitter was shinning." HanKyoReh. 2011.07.03. Date of searching. 2015.04.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미성. 1991. 사회학습이론 의제설정기능. 신문과 방송. (8): 88-99.
- 김대경. 2013.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 제19대 총선 기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24(2).
- 김영옥.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인숙. 2011.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3자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 79-106.
- 노진철. 2009. 위험 연구 패러다임 전환: Beck의 '위험사회론'에서 Luhmann의 '위험의 사회학'으로. 국가위험관리학회보. 1: 1-20.
- 박재영·김세은. 2004. 열독신문에 대한 비판이 독자의 신뢰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
- 박종민·신명희. 2004. 다원적 무지, 침묵의 나선, 제3자 효과, 그리고 상호 지향성 모델의 개념적 비교. 한국언론학회 언론과 사회 연구회 9월 세미나.
- 백혜진·이혜규. 2013.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수용자·미디어 전략.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송경희·이수영. 1998. TV폭력과 제3자 효과 : TV폭력에 대한 프로듀서와 학부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9-256.
- 송해룡. 2012. 위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공론장.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양승찬. 1999. 매스미디어의 제3자 효과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정보연구. 36: 159-184.
- 유홍식. 2010. 악성 댓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5): 238-278.
- 이건·김주애·류현숙. 2013.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 이은주·장운재. 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3: 50-71.
- 정성은·노희윤·변상호. 2014. 미디어 영향력 지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삼자 효과 가설'과 '추정된 영향의 영향가설'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형의 제시. 한국방송학보. 28(4): 198-239.
- 정일권·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론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4): 302-327.
- 정재민. 2007.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51: 111-134.
- 정지범. 2009. 국가 종합위기관리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정지범·류현숙. 2009. 한국인의 사회위험 지각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연구원. 19.
- 주정민. 2005.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과 지각적 편향. 한국방송학보. 19: 565-603.

차동필·한균태. 2003. 공익광고와 제3자 효과. 한국언론학보. 47: 38-59.  
최은경. 2014. 글로벌 미디어와 문화경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도입 및 활용전략. CIO Report. 24.  
한미정·김중은. 2004. 미디어효과 지각과 광고규제 및 보도강화에 대한 태도 : 음주, 흡연, AIDS이슈에 대한 제3자 효과, 제1자 효과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58: 301-328.  
한지은·정세훈. 2012.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남성 화장품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 55-77.  
행정안전백서. 2010. 서울: 행정안전부.

**기사**

“'물난리 현장중계' 트위터가 빛났다.” 한겨레. 2011.07.03. 검색일 2015.04.

**류현숙:**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ICT 정책, 갈등관리, 재난안전 관리, 정부개혁 등이다(hslyu@kpa.re.kr).

**홍승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전력거래소 성과관리팀에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재난대응, 위기관리, 소셜미디어, 정부신뢰 등이다(hong@kpx.or.kr).

